

# 광주대 유아교육과, 춘천인형극제 최우수상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유아교육과 소모임 동심인형극회가 제34회 춘천인형극제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대회에서 창작품 '조개 속 진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춘천인형극제 인형극 경연대회는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됐으며 전문 인형극인 육성을 통해 국내 인형극 저변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전국의 아마추어 인형극단과 인형극 동호회 등이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본선 진출에 성공한 16개 아마추어 인형극단 총 136명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동심인형극회가 선보인 '조개 속 진주'는 유치원에서 외모로 놀림을 받는 '진주'가 인형나라에서 겪는 모험을 통해 외모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는 과정을 담고 있다.

지난 1986년 창설한 광주대 유아교육과는 인형극 대본 제작, 순수창작을 통해 정기간연과 인형극제 등에 참가하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제33회 춘천인형극제 경연대회에서도 '편식하지 말고 음식을 골고루 먹자'는 메시지를 담은 창작품 '맛나 왕국 대소동'으로 최우수상을 수



제34회 춘천인형극제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광주대 유아교육과 소모임 '동심인형극회' 학생들. <광주대 제공>

상했다. 한편 광주대 유아교육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평가'에서 다양한 분야별 교수진 구성과 다수의 우수 졸업생 배출 및 활동, 교육성과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는 등 유아교육 인력양성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다도해국립공원서부사무소 선상결혼식 지원 눈길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안동순)는 10일 "지난 6일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대상으로 목포시 남항 일원의 선박(국립공원302호)에서 국립공원 친환경 선상결혼식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진>



국립공원 친환경 결혼식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부부에게 예식장·예복 대여, 결혼사진 촬영 등을 전액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NH농협은행 등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업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목포 앞 바다를 배경으로 한 선상결혼식은 사회기업 웨딩업체인 ㈜신부넷과 협력해 일회용품 없이 화분을 웨딩 장식으로 사용하고, 지역특산물(제사용용기로 포장된 국산 천일염)을 차례 품으로 제공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결혼식으로 진행됐다.

사무소는 지난해 3쌍의 부부에게 선상결혼식을 제공한데 이어 올해 2쌍의 부부에게 선상결혼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성운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협업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국립공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성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가뭄대책 점검회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맨 왼쪽) 사장은 지난 8일 순천 주암댐지사를 찾아 '가뭄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가뭄 '경계'에 진입한 주암조절지점 현장을 점검했다.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제공>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최규석)은 최근 여수에 위치한 동행빌리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모범 사회복무요원 김승준(21·오른쪽 두번째)씨를 표창하고 격려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제공>

# 전남대병원 김명선 교수팀, 퇴행성 어깨힘줄 파열 치료법 개발

완벽한 치료법이 없는 만성퇴행성 어깨힘줄 파열 질환의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이 제시됐다.

15일 전남대병원에서 따르면 김명선(사진) 교수 연구팀과 재생의료 치료제 전문기업 나오바이오시스템은 공동으로 만성퇴행성 어깨힘줄 파열을 치료할 수 있는 조직공학적인 공인합죽을 개발했다.

만성퇴행성 어깨힘줄 파열은 인구의 50% 이상이 겪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이를 완전히 파열되기 전의 상태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다. /채희중 기자 cae@kwangju.co.kr

# 화가 이중섭 조명 '흰 소가...' 쓴 김예나 작가 별세

화가 이중섭(1916~1956)의 삶과 소설로 엮은 '흰 소가 강을 건널 때' 등 소설과 수필 작품을 남긴 김예나(본명 김정례·사진) 씨가 14일 오전 1시42분께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0세.

고인은 이화여대 도서관학과 졸업 후 국립중앙도서관에 근무하다 1984년 '월간문학' 신인상 공모에 '산행기'가 당선되며 소설가로 등단했다. 소설집 '어둠아 바람아' (1999), '유실물 센터' (2005), 장편소설 '흰 소가 강을 건널 때' (2004), '열일곱살 때' (2005), 수필집 '내 생애 첫 휴가' (2009), '그냥 있다' (2020) 등을 펴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비밀의 집(재)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 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오라차차 내 인생(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추촌 뉴스	45 꾸러기 식사교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2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0 미남당(재)	15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45 프린세스 바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5 개는 흥룡하다(재)	00 12 MBC 뉴스 20 2022 KTA 파워태권도 최강전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2022 장흥물축제 축하쇼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0 영화가 좋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한국인의 밥상			00 뉴스브리핑
3	00 시사 직격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캐치! 티니핑(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박원숙의 같이 삼시디(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호적메이트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남도스럽게 스페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2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크740	50 황금기연	05 비밀의 집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오라차차 내 인생	30 박원숙의 같이 삼시디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50 미남당	00 호적메이트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30 PD수첩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00 오케이! 오케이!	30 100분토론	30 식자회담-국가발전 프로젝트
12	10 KBS결작 다큐멘터리 5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5 아이 러브 스포츠 40 영상앨범 산재	55 TV예술무대	4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6:40 당동당 유치원(재)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30 아기사어 울리와 울리엄
07:00 뽀롱뽀롱 뽀로로	12:00 EBS 뉴스 12	17:45 출동! 슈퍼왕스(재)
07:15 우당탕탕 우하안전단	12:10 건축탐구-집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30 얼마 깨우리	13:00 당신의 활력충전소	18:45 최고다! 후기식탐지
07:45 띠띠뽀 띠띠뽀	13:50 EBS 다큐프라임	19:00 미라클러스 :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08:00 당동당 유치원	14:45 바닷가 사람들	19:30 한국의 둘레길
08:35 출동! 슈퍼왕스	15:35 안전채널e	19:50 극한직업
08:50 슈퍼두퍼 잉글리시	15:40 지식채널e	20:40 세계테마기행
09:05 한자로 통(通)하는 삼국지	15:50 직업탐구 별일입니다2	21:30 한국기행
09:20 꼬마버스 타요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큐프라임
09:35 뽀로로와 노래해요	16:15 페퍼 피그	22:45 건축탐구 - 집
09:40 우리집 유치원	16:25 슈퍼두퍼 잉글리시(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6일(음 7월 19일 辛丑)

<p>36년생 갈꿈한 신년 정리가 절실한 때이다. 48년생 상대의 진의를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60년생 세밀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실수를 방지하라. 72년생 지극히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서야겠다. 84년생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되리라. 96년생 변동 수가 보이니 이를 감안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3, 80</p>	<p>42년생 불편하다면 오래도록 집착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54년생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결합되어 있으니 신중하라. 66년생 보류되어 왔던 것을 재개하는 마당이나, 78년생 별 탈은 없지만 적극적인 활동이 아쉽다. 90년생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긴다. 02년생 판시세가 주가격으로 반복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31, 73</p>
<p>37년생 굳이 내심을 드러낼 필요는 없으니 알고만 있으면 된다. 49년생 본바탕의 한계 때문에 회의를 느낄 수다. 61년생 명쾌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73년생 불상사가 생길 여지는 충분하다. 85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점검해야 후환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97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41, 54</p>	<p>43년생 처음의 것이 가장 나으니 그것을 택하라. 55년생 마음에만 담아 두고 발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7년생 분위기의 조성이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79년생 열린 시각으로 살펴야 제대로 볼 수 있다. 91년생 다시 한번 고려한 후에 행하는 것이 좋다. 03년생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26, 84</p>
<p>38년생 조금만 더 진력한다면 성과의 윤곽이 보일 것이다. 50년생 앞뒤로 있는 호랑이가 보이니 조심하라. 62년생 앞뒤 가리지 말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성사된다. 74년생 노고를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발생하는 동세이니라. 86년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살펴라. 98년생 고차원적인 단계로 가고 있는 길목이다. 행운의 숫자 : 37, 78</p>	<p>44년생 투명하게 밝힌다면 쉽게 융합될 수도 있다. 56년생 아무것도 아니니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68년생 공허한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자. 80년생 참고 기다린다면 늦게나마 취할 수 있겠다. 92년생 예상치 못한 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04년생 사심을 버려야 진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9, 99</p>
<p>39년생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미련 없이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다. 51년생 획득 못지않게 관리도 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63년생 단도직입적으로 풀어나가야만 한다. 75년생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나타나라. 87년생 여유를 갖고 신중히 처리하라. 99년생 기발한 발상이 필요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23, 62</p>	<p>33년생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년생 학습고대하여 왔던 것의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57년생 계획이 아무리 근사하더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69년생 가치와 의미의 관점에서 기준 삼아야 할 것이다. 81년생 드디어 종결짓게 된다. 93년생 활동력이 따라 좌우되리라. 행운의 숫자 : 29, 87</p>
<p>40년생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 52년생 새로운 시도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64년생 절대적으로 믿어 왔던 것에 의심이 가기 시작하라. 76년생 고지가 눈앞이니 용기백배하라. 88년생 자제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00년생 앞서가려 한다 면 오히려 악화하라. 행운의 숫자 : 02, 68</p>	<p>34년생 소신껏 행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니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자. 46년생 갈수록 점점 더 가속도가 붙는다. 58년생 발상이 참신하다면 결과가 갈릴 것이다. 70년생 역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82년생 상식적인 선에서 강구해 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94년생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00, 66</p>
<p>41년생 조금만 더 가면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나, 53년생 길고 짧은 것은 비교해 봐야 할 것이니 그전에는 논할 필요가 없다. 65년생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절실하다. 77년생 일단 상대의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순서이다. 89년생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나, 01년생 전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34, 74</p>	<p>35년생 주변인들과의 조화와 상호부조가 절실하다. 47년생 순차적인 계획의 실현이 대어를 낚게 해 줄 것이다. 59년생 앞에서도 매번 당하는 우를 범할 필요는 없다. 71년생 행국의 저변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원리부터 인식하라. 83년생 의도는 좋으나 때와 장소를 가려야만 한다. 95년생 간단명료한 것이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08, 56</p>